

2019 년 1 월 1 일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서 말씀하십니다. “찬미 예수님.”

“사랑하는 자녀들아, 오늘 나는 너희가 거룩한 사랑 안에서 살아감으로써 하느님의 뜻에 일치하며 새해를 보내도록 초대한다. 시간의 흐름이 너희의 적이 되게 하지 마라. 현 순간을 거룩한 사랑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너희의 강단으로 삼아라.”

“새해는 승리와 패배 두 가지를 모두 내포한다. 의로운 도덕에 맞서는 전쟁이 벌어질 것이며, 혼인은 계속해서 공격을 받게 될 것이다. 성(性)에 관한 문제는 계속해서 논쟁의 중심에 설 것이다. 도덕적인 문제는 점점 더 사탄이 선택한 전쟁터가 될 것이다. 너희는 교회와 세계 정치에서 예상치 못한 것을 보게 될 것인데, 사탄의 영향력이 속임수를 쓰는 많은 이들을 통해 퍼지고 있기 때문이다. 잉태의 순간부터 자연사에 이르기까지의 생명에 대한 무시는 계속해서 폭력을 야기하고, 또 인류의 불행에 대한 수많은 해답의 비밀을 품고 있었을 하느님의 훌륭한 창조물의 고갈을 초래할 것이다.”

“내 묵주기도는 모든 악에 대항하는 최상의 무기다. 묵주기도로 인해 사람들의 마음속에 감춰져 있는 많은 것들이 백일하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너희는 이례적인 장소에서 전례 없는 자연 재해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느님의 은총을 해결책으로 보지 않을 것이며 오직 인간의 노력만을 신뢰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해주고 있는 이 모든 일 가운데에는 내 티 없는 성심 안으로 들어오라는 내 모성적 부름이 있다. 내 성심 안에는 지도와 보호가 너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마음속 거룩한 사랑에 의해서 내 성심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너희가 묵주기도를 통해 내게 가까이 머무른다면 나는 선을 옹호하고 사탄의 계획을 쳐부술 것이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주의를 기울여라. 지혜를 얻기 위해 기도하여라.”

+ 성경 구절 독서 (에페 5:15-17):

그러므로 미련한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잘 살펴보십시오. 시간을 잘 쓰십시오. 지금은 악한 때입니다. 그러니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으십시오.

2019 년 1 월 1 일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서 말씀하십니다. “찬미 예수님.”

“내 온 힘은 이제 귀를 기울이지 않는 영혼들에게 쏟아지고 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부디 영혼들을 하느님께로 다시 데려오려는 절박한 내 심정을 생각하여라. 너희가 내 도움이 필요한 것처럼 나 또한 너희 도움이 필요하다.”

**2019년 1월 2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기도는 형세를 바꿀 수 있다는 진심 어린 확신을 가지고 이번 새해를 시작하자. 그러니, 현 정세를 지나치게 걱정하지 마라. 너희 기도의 힘이 성취할 수 있는 선에 집중하여라. 낙심은 너희의 기도를 약화시킨다.”

“새 예루살렘에서는 내 승리가 완성될 것이다. 그때 영혼들은 그들의 기도가 이루어 낸 선을 보게 될 것이다. 그들은 자유의지 결정의 힘을 완전히 깨닫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의 최선의 노력과 지극히 미소한 노력 둘 다 받아들인다. 또한 너희의 지극히 미소한 기도는 그것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 힘을 보태주기도 한다. 겨자씨 만한 믿음을 가져라.”

+ 성경 구절 독서 (마태 17:20 ~):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겨자씨 한 알만 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더러 ‘여기서 저기로 옮겨 가라.’ 하더라도 그대로 옮겨 갈 것이다. 너희가 못할 일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2019년 1월 3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내 계명의 진리 안에서 일치하기 위해 헌신할 것을 새롭게 다짐하며 새해를 시작하자. 이 헌신이 내 남은 신자들의 바탕이다. 내 남은 신자들의 일치란 내 계명의 진리에 의해 인도되는 마음의 일치를 말한다.”

“남은 신자들은 진리를 재정의하거나 죄를 달래는 새로운 교리를 만들어 내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 남은 신자들은 전통적인 혼인을 지지하며, 성별 인식(gender identification)과 관련한 타협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것들은 내 계명에 따른 진리의 규범이다. 진리에 도전하는 모든 시도는 내 진노를 부추긴다. 그러니 너희는 세상이 내 진노에 얼마나 가까이 다가와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과연, 현 사회는 나의 공정한 정의가 다 차기 (넘치기) 직전에 와 있다.”

“남은 신자들이 계속해서 진리를 옹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랑하는 남은 신자들아, (그렇게 함으로써) 너희는 바로 내 정의의 심판을 막고 있는 것이다.”

+ 성경 구절 독서 (필리 2:1-2):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격려를 받고 사랑에 찬 위로를 받으며 성령 안에서 친교를 나누고 애정과 동정을 나눈다면, 뜻을 같이하고 같은 사랑을 지니고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이루어, 나의 기쁨을 완전하게 해주십시오.

+ 성경 구절 독서 (에페 2:19-22):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외국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닙니다. 성도들과 함께 한 시민이며 하느님의 한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서는 바로 모퉁잇돌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전체가 잘 결합된 이 건물이 주님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납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하느님의 거처로 함께 지어지고 있습니다.

2019년 1월 4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나는 일 년 중 이맘 때가 되면 영혼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이 특히 괴롭다. 나는 수많은 은총과 엄청난 사랑을 베풀지만 대부분의 영혼들은 내 존재나 그들의 삶 속에서 활동하는 내 은총을 인정하지 않는다. 영혼들은 물질주의라는 거짓 신과 그것을 따르는 무질서한 자기만을 위한 사랑의 영에게 굴복한다.”

“나는 모든 영혼에게 진리 안에서 하나로 일치하라고 청하기 위해 또다시 왔다. 내가 준 계명은 과거 시대만이 아니라 현 시대를 위해서도 준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가 죄가 되는 행동 양식과 너희 자신의 구원에 대한 무관심에서 벗어나기를 바란다. 매 순간 거룩한 사랑이 너희의 (행동) 동기가 되게 하여라. 너희가 어떤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울 때 사건과 상황을 만드는 정통한 기술자로서 나를 그 계획에 참여시켜라. 매 현순간이 모여 한 해를 이룬다. 나는 너무나도 많은 사랑으로 너희에게 베푸는 매 현순간의 일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현재(의 순간)에 있는 내 창조의 손길을 찾아라. 그리고 모든 미래의 순간에 있는 내 창조의 손길을 신뢰하여라. 나는 절대 너희를 저버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언제나 너희의 제공자이며 보호자이자 인도자다. 사람들은 너희를 실망시킬 수도 있지만 나는 언제나 너희의 부정적 힘의 원천이다.”

+ 성경 구절 독서 (시편 5:11-12):

그러나 당신께 피신하는 이들은 모두 즐거워하며 영원토록 환호하리이다. 당신 이름 사랑하는 이들을 당신께서 감싸 주시니 그들은 당신 안에서 기뻐하리이다. 주님, 당신께서는 의인에게 복을 내리시고 큰 방패 같은 호의로 그를 덮어 주십니다.

2019 년 1 월 5 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는 믿지 않는 이들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 또다시 너희에게 왔다. 나는 너희가 이 메시지들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 너희에게 말하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다. 만약 세상의 마음이 바뀌지 않는다면 너희는 계속해서 멸망으로 치달을 것이다. 세상의 마음은 믿는 이와 믿지 않는 이의 구별 없이 세상의 모든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믿지 않는 이가 믿는 이보다 훨씬 더 많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자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이를 믿는 이라 여긴다. 이런 영혼은 이 메시지들에 반대하는 대신 이를 은총으로 여긴다. 모든 이가 이곳에 주어진 천상의 조언에서 유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오만하게도, 모든 회심의 과정은 항상 진행형이라는 사실을 무시하지 마라. 너희의 회심은 이 메시지들로 인해 향상되고 강화된다. 나는 각 영혼이 천국에서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에까지 이를 수 있기 바란다.*”

“내가 말하는 믿지 않는 이란 마음속에 내 아들을 지니지 않은 이를 말한다. 그들은 내게 세상을 지배하는 정당한 내 자리를 허락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자기 자신과 세속주의로 가득 찬 마음으로 여러가지 결정을 내린다. (자녀를) 걱정하는 아버지로서 나는 이 모든 것을 바꾸기 위해 이곳 성지에서 말하고 있다. 나는 계속해서 모든 영혼에게 내 계명에 순종하라고 요청한다. 이것이 믿음과 구원의 길이기 때문이다.”

“너희 구원을 지혜롭게 선택하여라. 구원은 한 번의 결정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매번, 시시각각 내 신성을 받아들임으로써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한 순간에는 나를 선택하고 그 다음 순간에는 죄를 지음으로써 내게서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어야 한다.”

“나는 영원히 너희의 창조주이며 보호자이자 인도자다.”

** 하나되신 성심의 여섯 번째 심방: 2003 년 4 월 1 일 메시지 참조 (예수님)*

+ 성경 구절 독서 (2 테살 3:1-5):

끝으로 형제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서처럼 빠르게 퍼져 나가 찬양을 받고, 우리가 고약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구출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모든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성실하신 분이시므로, 여러분의 힘을 북돋우시고 여러분을 악에서 지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신뢰합니다. 우리가 지시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실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실행하리라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이끄시어, 하느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이르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2019 년 1 월 5 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요셉 성인께서 오시어 말씀하십니다. “찬미 예수님.”

“나는 오늘밤 (이곳 성지에) 모인 사람들 사이를 지나다니며 그들과 그들의 가정을 축복해 주겠습니다.”

**2019 년 1 월 5 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람이 된 너희 예수다.”

“너(모린)는 도덕적 상대주의(moral relativism)에 대해 묻고 있다. 간단히 말하자면, 그것은 도덕을 재정의하기 위한 구실이다. 그것은 단지 도덕적 선택에 혼란을 주고 그 선택을 복잡하게 만들기 위한 화려한 용어에 지나지 않는다.”

“도덕적 상대주의는 도덕적 타락을 조장하기 위한 사탄의 도구 중 하나로, 지금 이 세상에 널리 퍼져 있다.”

**2019 년 1 월 6 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우주의 창조주, 모든 마음과 영혼의 창조주다. 너는 어제 도덕적 상대주의에 대해 물었고 그것은 죄를 짓기 위한 변명이라는 대답을 들었다. 나는 죄는 죄일 뿐이며 정상 참작의 상황이라도 그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류에게 상기시켜 준다. 도덕적 상대주의는 생명과 혼인, 의로운 도덕을 공격하기 위해 사탄이 사용하는 침입로다.”

“다른 영혼들에게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는 영혼일수록 더 많이 공격 받는다. 오늘날 영혼들은 마치 자신이 원하는 성별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성(性)은 공격을 받고 있다. 잉태의 순간부터 자연사에 이르기까지의 생명은 더이상 신성한 것으로도, 또 내가 준 선물로도 인식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내게서 최종 결정권을 빼앗아 죄 많은 인간의 손에 그 결정권을 쥐어 주는 낙태와 온갖 종류의 폭력과 안락사 등이 모든 것이 생겨나게 된 것이다. 언젠가는 반드시 죽는 인간이 무엇이기에 누가 살고 누가 죽을지를 결정한다 말이나? 수백만의 영혼들이 도덕적 의로움을 무시한 채 혼인하지 않고 함께 동거하며 살고 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이것은 인간이 원하는 것이지 내가 명령하는 것이 아니다.”

“나에 대한 사랑을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으로 대체하면서 도덕적 상대주의는 그 자체가 신이 되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만, 죄는 인간이 원한다고 해서 정당화되는 것이 아니다. 다시금 나를 만유 위에 사랑하고, 너희의 삶이 이를 반영하게 하여라. 나는 두 팔을 활짝 벌리고 각 영혼을 기다리고 있다. 뉘우치는 마음으로 내게 돌아오너라.”

+ 성경 구절 독서 (1 테살 5:16-22):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느님의 뜻입니다. 성령의 불을 끄지 마십시오. 예언을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분별하여, 좋은 것은 간직하고 악한 것은 무엇이든 멀리하십시오.

+ 성경 구절 독서 (레위 5:17):

“누가 모르고 했을지라도, 주님이 하지 말라고 명령한 것을 하나라도 하여 죄를 지어 죄인이 되고, 그 죄값을 지게 되었을 때에는,”

**2019년 1월 7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도덕적 상대주의는 사람의 목숨이 왜 이렇게까지 위태롭게 되었는지에 대한 근본 원인이다. 낙태는 이제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살인과 자살은 널리 퍼져 있으며, 이제 뉴스에서 살인 사건을 듣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전반적인 세상의 양심은 겨우 몇십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일 정도로 변했다.”

“죄를 받아들이는 데에는 결코 좋은 이유가 있을 수 없다. 선과 악의 싸움은 여전히 세상에 존재하며 내 아들의 재림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나는 생명을 신성한 것으로 여긴다. 생명을 주는 이는 바로 나이며, 또한 마땅히 그래야 하듯, 생명을 거두는 이도 나다. 요즘은 도덕적 상대주의가 성공을 거두고 있는 사악한 시대다. 사람의 목숨이 위태로워졌다는 점과, 혼인에 대한 여러가지 도전과 성(性)에 대한 혼란을 생각해 볼 때 이것은 사실이다. 인간은 자신의 권한 밖에 있는 결정을 내리고 그 다음에는 자신의 잘못에 대한 변명을 지어낸다.”

“나는 세상의 양심을 바로잡아주고 모든 진리인 내 계명의 현실로 인류가 되돌아오도록 오늘 이곳 성지에서 말하고 있다. 심판이 오면 - 심판은 반드시 올 것이다 - 변명은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 성경 구절 독서 (2 티모 4:1-5):

나는 하느님 앞에서, 또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서, 그리고 그분의 나타나심과 다스리심을 결코 그대에게 엄숙히 지시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히 계속하십시오. 끈기를 다하여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타이르고 꾸짖고 격려하십시오. 사람들이 건전한 가르침을 더 이상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입니다. 호기심에 가득 찬 그들은 자기들의 욕망에 따라 교사들을 모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에는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않고 신화 쪽으로 돌아설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견디어 내며, 복음 선포자의 일을 하고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2019년 1월 8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하느님의 자비심 축일(4월 28일)에 내가 너희에게 오는 것에 대한 준비로서 너희에게 몇 가지 기도문을 주려 한다. 이 기도들이 너희가 내 현존 안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너희 마음을 보다 더 잘 준비시켜줄 수 있기 바란다. 다음은 첫번째 기도다:”

“천상의 아버지, 제가 ‘하느님’이라는 당신의 이름을 공경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결코 당신의 이름을 불경하게 사용하거나 함부로 사용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만약 사람들이 진심으로 이 기도를 바친다면 이것 하나만으로도 기적이 될 것이다.”

+ 성경 구절 독서 (신명 5:11):

주 너의 하느님의 이름을 부당하게 불러서는 안 된다. 주님은 자기 이름을 부당하게 부르는 자를 벌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 않는다.

**2019 년 1 월 9 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너희 나라(미국)의 안녕을 위협하는 가장 큰 문제는 정치적 야심에 의해 부채질되고 있는 정치적 분열이다. 한 정당은 단체로 건전하고 타당한 논리에 맞서고 있다. 그들은 너희 나라와 국민의 안녕은 생각치 않고 야심과 권력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 정당은 국경의 위기를 부추겼으며 이제는 어떤 해결책이 되었든 그것에 대한 논란의 불길을 부채질하고 있다. 이것은 평범한 문제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안녕에 관련된 일이다. 이 문제에 대한 간단한 해결책은 없지만, 너희 나라 국경을 지키는 것이 단연 첫 번째 단계다.”

“나는 너희에게 정치를 한쪽으로 제쳐 두고 너희 대통령(트럼프)의 건전한 리더십을 중심으로 단결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성경 구절 독서 (필리 2:1-5):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격려를 받고 사랑에 찬 위로를 받으며 성령 안에서 친교를 나누고 애정과 동정을 나눈다면, 뜻을 같이하고 같은 사랑을 지니고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이루어, 나의 기쁨을 완전하게 해주십시오. 무슨 일이든 이기심이나 허영심으로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십시오. 저마다 자기 것만 돌보지 말고 남의 것도 돌보아 주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지니셨던 바로 그 마음을 여러분 안에 간직하십시오.

**2019 년 1 월 9 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잘못 인도되지 마라. 오직 나만이 양심 조명의 시기와 적그리스도의 힘이 나타나는 때와 다른 모든 사건을 알고 있다. 이 사건들의 날짜와 시간은 이 메신저(모린)나 다른 어느 누구에게도 공개된 적이 없다.”

2019년 1월 10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오늘 나는 너희에게 나에 대한 너희의 완전한 사랑을 가로막는 모든 것을 너희 마음에서 없애라고 충고한다. 사악한 자는 너희가 내 신성한 뜻에 의탁하기를 소홀히 했던 문제들을 떠올리게 하는데 매우 능숙하다. 이는 너희가 매 현 순간 너희에 대한 내 사랑의 깊이를 깨닫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너희 자신의 결점을 보면서 내 신성한 자비를 충분히 신뢰하지 못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다. 나는 뉘우치는 이(마음)에게 내 자비를 아끼지 않는다.”

“어떤 이들은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만 이 메시지들을 읽는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천국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도록 너희 마음을 지금 준비시키기 위해서 너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너희 마음속 거룩한 사랑이 더 순수할수록 천국에서 너희가 얻게 될 자리도 높아진다. 그러니 누가 믿고 누가 믿지 않는지 걱정하지 마라. 모든 믿지 않는 이를 위해 기도하여라. 너희는 내 진노가 다가옴에 따라 누가 회심하게 될지를 안다면 놀랄 것이다.”

“현 (순간)에 너희 마음을 거룩한 사랑의 순수한 그릇으로 만드는 일에 전념하여라. 그렇게 하면 앞으로 내 개입을 신뢰하는 것이 쉬워질 것이다. 매 현 순간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너희의 기회다. 그러니 현재는 너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인 것이다.”

+ 성경 구절 독서 (에페 5:15-17):

그러므로 미련한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잘 살펴보십시오. 시간을 잘 쓰십시오. 지금은 악한 때입니다. 그러니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으십시오.

2019년 1월 11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매일 말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 내 징벌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는 표시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구체적인 사건들의 날짜와 시간을 알려주지는 않는다. 그 이유는 분명하다. 나는 너희가 언제나 최후 심판 때 내 아들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너희의 준비는 바로 내 계명에 대한 순종이다. 이것이 너희가 심판 받게 될 기준이기 때문이다.”

“다가오는 징벌의 일부 사건들의 날짜를 안다고 주장하는 소위 ‘메신저’라고 하는 이가 누구든 그들에게 귀를 기울이지 마라. 노아는 홍수가 일어날 날짜를 알지 못했지만 그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대비하였다. 이제, 나는 너희 각자에게 준비하라고 요청한다. 자신의 영혼의 미래를 돌보지 않는 인간으로 말미암아 내 성심이 넘치도록 큰 슬픔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나를 기쁘게 해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자기 자신만을 만족시키고자 노력한다.”

“오늘날 너희가 구해야 하는 방주는 거룩한 성모의 성심이다. 성모의 성심은 거룩한 사랑이다.”

+ 성경 구절 독서 (사도 1:7):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당신의 권한으로 정하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2019 년 1 월 11 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오후 3 시 30 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람이 된 너희 예수다.”

“마음의 평화의 비결은 항상 너희 자신을 마지막에 두는 것이다. 이것은 또한 성덕의 길이기도 하다.”

2019 년 1 월 12 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이 선교사업은 오로지 진리에 관한 것이다. 영혼이 마음속에서 무엇을 진리라 여기는지가 그들의 영원한 목적지를 결정한다. 사탄은 진리를 자신의 거짓으로 바꾸는 데 몰두하고 있다. 그러나 진리는 바뀔 수 없다. 영혼이 무엇을 믿는지가 진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바꿔 말하면, 영혼이 진리를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않으므로써 진리를 바꿀 수는 없다는 뜻이다.”

“너희가 천국과 지옥과 연옥을 믿지 않는다 해도 너희의 불신이 이들의 존재를 없애지는 못한다. 수많은 영혼이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나서야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내 계명의 중요성에 대한 너희의 불신이 너희가 그 계명에 순종했느냐에 따라 심판 받게 될 것이란 사실을 바꾸지는 못한다. 일부 잘못 인도된 영혼들은 나를 믿지 않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이런 영혼들이 심판 받을 때 내 존재의 진실이 그들의 심판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너무 늦을 때까지 내 존재에 대한 증거를 기다린다면 이 얼마나 치명적인 실수냐.”

“너희 주변 세상은 내 존재를 증거하고 모든 자연과 창조물에 대한 내 지배권을 증거한다. 만약 너희가 내 존재에 관한 진실을 찾는다면, 너희는 인간 생명을 포함한 창조된 모든 것의 경이로움에서 너희의 탐구를 멈춰야만 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어떻게 진리를 규정하는지, 그리고 너희가 마음속에서 진리의 기초를 어디에 두는지를 주의하여라. 이것만이 너희의 운명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 성경 구절 독서 (신명 5:26-27):

육체를 가진 사람 가운데, 살아 계신 하느님께서 불 속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도 우리처럼 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당신께서 가까이 가시어 주 우리 하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모두 들으십시오. 그리고 주 우리 하느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시면, 우리가 듣고 실천하겠습니다.’

2019년 1월 13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나는 온 마음으로 너희의 사랑과 우정과 신뢰를 원한다. 이것들은 믿음의 열매를 맺는다. 믿음은 내가 너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다. 믿음은 사고 팔거나 좀 더 좋은 다른 무엇과 바꾸기 위해 반납할 수 없다. 믿음은 현세에서 계속 시험을 당하지만 사랑과 우정과 신뢰가 충분히 강하다면 실패하지 않는다. 이 세 가지는 믿음을 작동시키는 건전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너희가 믿음의 내적 활동을 잘 이해하도록 이런 간단한 예를 사용한다.”

“너희를 위한 내 신성한 뜻에 대한 믿음은 궁극적으로 삶의 십자가를 통해서 시험을 받는다. 이런 시기가 닥칠 때 너희는 너희에게 일어나는 일 중 너희의 아빠 하느님인 내가 보지 못하고 너희를 도와주지 않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믿음을 지켜야만 한다. 믿음은 삶의 흐트러진 매듭을 마무리 지으며,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이해할 수 있게 해 준다. 나를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와 성서다. 나와 너희의 관계가 깊을수록 너희의 믿음도 강해진다.”

+ 성경 구절 독서 (마르 5:34):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르셨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그리고 병에서 벗어나 건강해져라.”

2019년 1월 14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믿음은 지적 기량의 부산물이 아니다. 믿음은 기적과 설명할 수 없는 일 들을 받아들이게 하는 천국의 선물이다. 믿음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논리적으로 판단하려고 하지 않고 영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믿음의 실체를 논리적으로 밝히려는 이는 결코 진리를 찾아내지 못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나를 매우 흡족케 하는 것이며, 이런 영혼이 가장 영적으로 진보하기가 쉽다. 이런 마음은 믿음이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지식인은 믿음에 관한 문제를 조목조목 검토하고 분석하면서 단순한 마음을 가진 영혼이 쉽게 받아들이는 것들의 신빙성을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하려 한다.”

“수많은 영적 진리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진 영혼에게 주어졌다. 이런 이들은 자신이 중요하게 된다거나 사람들에게서 인정을 받는 것에는 관심이 없다. 파티마의 어린 목동들 또는 루르드의 목격증인의 단순함을 본받아라. 언제나 이런 영혼들에게 주어진 메시지가 중요한 것이지 메신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곳 성지도 이와 마찬가지로.”

“믿음은 훨씬 더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게 해 준다. 더욱 깊은 믿음을 얻기 위해 기도하여라. 이것은 좋은 기도다. (이렇게 하면) 진리 안에서의 너희의 믿음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을 초월한 것 또한 이해하게 될 것이다.”

+ 성경 구절 독서 (시편 4:2-3):

사람들아, 언제까지 내 명예를 짓밟고 헛된 것을 사랑하며 거짓을 찾아다니려 하느냐? 주님께서서는 당신께 충실한 이에게 기적을 베푸심을 알아라. 내가 부르짖으면 주님께서서는 들어 주신다.

**2019년 1월 15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너희의 믿음은 아무리 많은 금이나 은보다도 훨씬 더 귀중한 것이다. 믿음은 사고 팔 수 없으며, 오직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만 드러난다. 너희의 믿음은 너희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평화의 안식처다.”

“인간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앞으로 나아가 진리와 의로움을 지지할 수가 있는 것이다. 마음속 믿음이 강할수록 거룩한 담대함을 받아들이기 쉽다. 요즘 시대에 거룩한 담대함은 필수적인데, 이것이 아니라면 진리가 점차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도덕은 타협되었으며, 오직 믿음의(신앙) 공동체에 의해서만 구제될 수 있다. 너무나도 많은 이가 선과 악을 구별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는 올바른 이성 속의 믿음이 희석되어 약해졌기 때문이다.”

“믿지 않는 세상에서 진리의 용사로 남아있을 수 있도록 믿음을 얻기 위해 기도하여라. 나는 이 기도 청원을 존중할 것이다.”

+ 성경 구절 독서 (1 테살 2:13):

우리는 또한 끊임없이 하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전하는 하느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그것을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고 사실 그대로 하느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신자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 성경 구절 독서 (2 테살 2:13-15):

주님께 사랑받는 형제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때문에 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게 하여 구원하시려고, 여러분을 첫 열매로 선택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차지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형제 여러분, 굳건히 서서 우리의 말이나 편지로 배운 전통을 굳게 지키십시오.

2019 년 1 월 16 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는 (모린) 또다시 하나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일에 마음을 빼앗길 때 믿음이 타협된다. 바로 여기에서 신뢰가 나서야만 하는 것이다. 신뢰는 믿음의 파수꾼이다.”

“개인적 거룩함의 난관은 언제나 신뢰를 예의 주시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신뢰가 타협되면 믿음도 타협되기 때문이다. 영혼이 나보다 인간의 노력에 더 의지하기 시작할 때 신뢰가 공격 받을 수 있다. 어떤 상황이든 다 주관할 수 있는 내 전능한 힘을 언제나 신뢰하여라.”

“나에 대한 강한 신뢰의 덕으로 무장한 영혼은 악과 싸울 수 있다. 모든 영혼은 영적인 마음을 도전이라 여기는 사탄에게 좋은 목표다. 기도, 특히 미사와 묵주기도는 사탄을 드러내고 무찌르기 위한 최고의 무기다. 영혼이 충분히 기도하지 않으면 악을 알아보기가 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와 정부, 연예계 등에서 악이 존재하는 것이다.”

“신뢰에 단단히 고정된 믿음을 얻기 위해 기도하여라. 이것이 사람들의 마음과 세상에서 사탄의 활동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다.”

+ 성경 구절 독서 (에페 6:10-17):

끝으로, 주님 안에서 그분의 강한 힘을 받아 굳세어지십시오. 악마의 간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우리의 전투 상대는 인간이 아니라, 권세와 권력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령들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날에 그들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채비를 마치고서 그들에게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한 무장을 갖추십시오. 그리하여 진리로 허리에 띠를 두르고 의로움의 갑옷을 입고 굳건히 서십시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위한 준비의 신을 신으십시오. 무엇보다도 믿음의 방패를 잡으십시오.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불화살을 그 방패로 막아서 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아 쓰고 성령의 칼을 받아 쥐십시오. 성령의 칼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019 년 1 월 17 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느님의 자비심의 축일 (2019 년 4 월 28 일)에 많은 이가 이곳 성지로 순례 올 것을 희망한다. 희망은 믿음에 근거한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을 때 그는 믿음을 가지고 그 일을 시작했으며 자신의 솜씨가 내 마음에 들 수 있기를 바라는 희망을 가지고 일을 계속 진행했다. 희망은 사탄의 낙심의 정반대다. 지혜는 희망을 빛으며, 인내는 희망의 열매다.”

“희망은 믿음에 대한 시험이다. 마음속 믿음이 강할수록 희망도 강하다. 믿음이 약해지면 희망 또한 무너진다. 요즘 너희는 너희 나라(미국)의 국내 혼란이 빨리 끝나기를 희망하고 있다. 너희는 너희 정부가 옳은 일을 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을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지지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희망하는 것이다. 또한 너희는 너희 지도자들이 지혜를 가지고 평소처럼 정치적 (대립이) 아니라 진리를 깨달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 계속해서 다 잘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져라. 너희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이 그 다음엔 너희 주변 세상에도 나타나게 된다.”

+ 성경 구절 독서 (1 테살 5:8):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이니, 맑은 정신으로 믿음과 사랑의 갑옷을 입고 구원의 희망을 투구로 씌시다.

2019 년 1 월 18 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많은 것이 이 메신저(모린 스위니-카일)에게 전해졌고 많은 것이 이미 알려졌기에 나는 거룩한 사랑이 이제는 명확히 정의되었다고 생각한다. 오늘 나는 너희가 모든 것을 올바른 관점에서 볼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다. 거룩한 사랑은 모든 훌륭한 희생과 기도의 기초다. 거룩한 사랑은 선과 악을 규정하며,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큰 가치를 지닌 진주다. 마음속에 거룩한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는 아무도 낙원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니 너희 마음속 거룩한 사랑은 너희를 따라 영원에까지 이른다는 사실을 깨달아라. 모든 진실한 덕은 반드시 거룩한 사랑에 기초해야 한다. 모든 죄는 거룩한 사랑에 반대한다.”

“자기만을 위한 사랑은 거룩한 사랑을 망각할 때 무질서하게 된다. 거룩한 사랑은 너희의 구원으로 가는 길을 뚜렷하게 보여준다. 거룩한 사랑에 대한 완전한 내맡김은 너희가 매일 기도해야 하는 은총이다. 이 내맡김은 오직 천상의 도움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천사와 성인 들은 모든 영혼이 매 현 순간 거룩한 사랑의 길을 깨닫고 받아들이도록 매일 기도한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마음속 거룩한 사랑의 중요성이 명백하게 드러난다. 너희 마음속에 거룩한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가 너희의 영원을 결정한다. 너희가 마지막 숨을 쉴 때 거룩한 사랑을 선택하여라.”

“나는 너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회심하도록 이런 사실을 너희에게 알려준다. 이것을 널리 알려라.”

+ 성경 구절 독서 (1 코린 13:13):

그러므로 이제 믿음과 희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계속됩니다. 그 가운데에서 으뜸은 사랑입니다.

2019 년 1 월 18 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거룩한 사랑은 모든 개인적 거룩함의 기초이며 또한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 너희 마음속 거룩한 사랑의 깊이가 너희의 거룩함의 깊이를 결정한다. 영혼이 거룩한 사랑에 더 내맡길수록 성화를 향해 나아가는 그의 여정도 더 깊어진다. 영혼과 거룩한 사랑 사이의 거리가 더 멀어질수록 영혼과 거룩한 완덕 사이의 거리 또한 더 멀어진다.”

“그러므로, 거룩한 사랑에 근거해 모든 결정을 내려라.”

2019 년 1 월 19 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폭풍 전의 고요함이 어떤 것인지 경험으로 알고 있다. 이 고요함 끝에 갑자기 바람이 세차게 불기 시작하면서 주변 환경이 아수라장이 된다. 성령의 숨도 이와 마찬가지로. 성령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게 불쑥 다가온다. 그러다가 갑자기 그의 힘이 느껴지면서 모든 것이 달라진다.”

“바로 이 성령이 너희를 이곳 성지로 이끌고 이 메시지들로 너희의 마음을 깨우쳐주는 것이다. 어떤 이들에게는 이 메시지들을 접하는 것이 일시적이고 지나가는 경험에 불과하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사건이 되기도 한다. 그 차이는 마음이 얼마나 열려 있느냐에 달려 있다. 이 선교사업은 사람들이 회심하도록 영향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이 계속해서 회심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폭풍이 다양한 영향을 주듯이 이 선교사업 또한 사람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 메시지들을 실천하며 살고자 하느냐에 따라 그들의 삶에 영향을 준다.”

“이곳에 베풀어지는 천상의 총애의 은총이 너희를 지나가도록 허락하지 마라. 이 메시지들을 통해 너희에게 전달되는 천상의 목적이 너희 마음과 삶에 영향을 주게 하여라.”

+ 성경 구절 독서 (1 요한 3:18):

자녀 여러분,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으로 진리 안에서 사랑합시다.

2019년 1월 20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눈이 바깥 풍경을 변화시키듯 내 거룩한 뜻에 따라 베풀어지는 내 은총 또한 사람들과 상황과 세상을 바꾼다. 크고 작은 모든 문제 중에서 내 뜻에 의해 관리되지 않는 문제는 없다. 내 뜻은 언제나 내 은총과 하나다. 내가 너희 각자를 사랑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깨달아라.”

“어떤 상황이 생기거나 발생하든 두려워하지 마라. 자녀를 보살피는 아버지의 손처럼 내 뜻이 너희를 보살핀다. 사탄이 미래에 일어날지도 모를 여러가지 가능한 각본을 홍보하도록 허락하지 마라. 내 사랑 가득한 은총이 문제를 해결책으로 바꿀 것임을 믿어라. 나는 적절한 사람들을 너희 삶 속에 배치해 너희를 돕게 한다. 나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며, 너희 주변에 있는 악을 드러내고 그 악을 물리칠 수 있는 은총을 준다. 또한 선의 빛을 어둠 속으로 보낸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말해준 모든 것에 대한 큰 신뢰를 가지고 소위 문제라 여겨지는 것들을 넘어 앞으로 나아가거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 성경 구절 독서 (로마 8:28):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들, 그분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2019년 1월 21일

신앙의 수호자이신 마리아 33주년 기념일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서 말씀하십니다. “찬미 예수님.”

“사랑하는 자녀들아, 오늘 나는 너희의 신앙의 수호자로서 왔다. 나는 공식적인 승인이 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칭호를 고수한다. 신앙은 그 어느 때보다 오늘날 엄청난 공격을 받고 있다. (지금 이 시대는) 참된 신앙을 부정하는 것이 유행하고 있다. 너희의 신앙은 삶의 풍파 속에서 너희를 배교와 모든 진리의 타협으로부터 보호하는 너희의 구조선이 되어야만 한다. 너희는 이 칭호로 매일 내게 기도해야 한다. 그러면 너희의 신앙이 어떻게 공격 받고 있는지 내가 깨우쳐 줄 것이다. 국제 뉴스가 보도되는 방식, 그리고 음악과 복장 규정이 일반적인 것으로서 너희에게 전달되는 방식은 아주 미묘하다. 사회적으로 용납되는가 하는 관점이 아니라 진리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도와주는 의로운 지혜를 얻기 위해 기도하여라.”

“순수의 시대는 이미 과거가 된 지 오래다. 순수의 시대는 위험한 세련됨으로 대체되었다. 너희는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된다. 너희의 신앙이 보호되어야 할 필요가 없었다면 나도 이 칭호의 사용을 고집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신앙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임을 부정하는 것은 순전히 부주의에 불과하다. 사악한 자는 너희 마음속에서 온갖 타협과 거짓된 안정감을 조장한다. 참된 신앙 안에 있지 않는 한 마음을 놓아서는 안된다.”

2019 년 1 월 21 일

신앙의 수호자이신 마리아 33 주년 기념일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서 말씀하십니다. “찬미 예수님.”

“나는 신앙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오만한 시대에 신앙의 수호자로서 다시 한 번 너희에게 왔다. 많은 이가 자신이 진리를 ‘능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진리를 새로 지어내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그들은 진리와 교착 상태에 이르렀다. 나는 냉담한 마음에 신앙의 불을 다시 지피기 위해 왔다. 무엇이 너희를 지나가고 있는지 깨달아라. 너희는 너희의 영양분인 성령 없이는 영적인 나무로 성장할 수 없다. 무엇보다 우선 너희에게는 진리가 없다는 점을 깨달아라. 그런 다음 진리를 발견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진리를 추구하여라.”

“나는 적절한 때인 지금 이 시대에 모든 이의 마음을 신앙 안에서 새롭게 해줄 수 있기를 바란다.”

2019 년 1 월 22 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는 집 안에 머무름으로써 추위와 눈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다. 영적인 세계도 이와 마찬가지로. 내 부성적인 성심의 피신처 안에서 너희는 세상의 추위와 파멸로부터 보호를 받는다. 사람들의 마음의 냉담함이 세상에 만연해 있는데, 이는 영혼들이 무질서한 야심이 낳은 물질주의와 세속적 욕망으로부터의 보호를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비주의와 불법적인 취미활동의 본질적인 위험을 보지 못한다. 사람들은 그들이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 그럼으로써 (하루종일) 그들의 마음이 무엇에 사로잡혀 있는지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만, 아침마다 너희의 마음을 내게 다오. 거룩한 천사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청하여라. 그러면 내가, 너희가 강한 영성을 가지지 못하도록 영성을 조금씩 갉아먹고 너희가 내 신성한 뜻과 일치하는 것을 가로막는 너희 주변 도처에 있는 악으로부터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세상에는 기도를 가볍게 여기게 만들고 개인적 거룩함을 향한 노력을 경시하게 만드는 영들이 존재한다. 내게는 이런 영들과 전투를 벌일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는 용사 천사들이 있다. 그들에게 도움을 청하여라. 세상의 견해에 굴복하지 마라. 이제 너희는 경고를 받았다!”

2019 년 1 월 23 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만물의 주님이다. 내 안에 알파와 오메가가 있다. 나는 매 현 순간을 명령하며, 각 영혼이 구원을 얻는 데 필요한 것들로 매 순간을 채운다. 이 사실을 유념하면서 나는 각 영혼이 현 순간을 구원의 수단으로, 그들 가운데 있는 내 특별한 계획으로 받아들이기 바란다. 너희의 도움은 내 이름을 부르는 데 있다.”

“육체적, 영적, 또는 감정적으로 너희가 가진 것을 다른 어느 영혼과도 비교하지 마라. 각 영혼에게는 악을 무찌르고 승리하기 위해서, 심지어 성인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정확하게 주어졌다. 각 영혼은 지혜롭게 선택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어떤 영혼들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결정을 내려야 하는 중대한 책임이 주어졌다. 만약 그들이 야심과 무질서한 자기만을 위한 사랑으로 가득차 있다면 그들은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할 것이다. 그래서 흔히 정치가 매우 썩쓸한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공정한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봉사해야 하는 책임은 고려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투표를 할 수 없는 태어나지 않은 아기들의 권리를 무시하는 낙태의 참상이 생겨나게 된 것이다.”

“현 순간의 은총에 협력하여라. 너희는 이에 따라 심판 받게 될 것이다. 내 신성한 뜻에 따라 너희에게 할당된 시간을 올바르게 사용하여라.”

+ 성경 구절 독서 (에페 5:15-17):

그러므로 미련한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잘 살펴보십시오. 시간을 잘 쓰십시오. 지금은 악한 때입니다. 그러니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으십시오.

2019 년 1 월 24 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신뢰는 믿음과 희망과 사랑에 기초하는 덕이다. 마음속 믿음과 희망과 사랑이 강할수록 신뢰도 커진다. 신뢰 없이는 영혼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신뢰하는 마음은 내 베푸는 은혜가 쏟아져 나오도록 자극하며, 이 은혜는 신뢰하는 마음 속에 가장 많이 쏟아져 내린다.”

“세상의 모든 평화 협정은 내 베푸는 은혜에 대한 신뢰로부터 시작되어야만 한다. 인간의 노력만 가지고는 공허한 결과만 불러올 뿐이다. 이방 종교에 속한 영혼들과 상대하는 것은 속임수와 상대하는 것이다. 그런 자들은 내 계명의 진리를 알지 못하며 또한 내 계명에 따라 살지 않는다. 이런 자들을 신뢰로 상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러므로 이교도들을 상대할 때는 신뢰가 아니라 책임을 갖대로 삼아야 한다. 기만적인 마음과의 일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진리 안에서 하나로 일치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라. 이런 일치는 오직 책임을 지는 것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 성경 구절 독서 (시편 5:10-13):

그들 입에는 진실이 없고 그들 속에는 흉계만이 들어 있으며 그들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그들 혀는 아침하기 때문입니다. 하느님, 그들이 짓값을 받게 하소서. 자기들의 음모에 빠지게 하소서. 그들의 죄악이 많으니 그들을 내치소서. 정녕 그들이 당신을 거역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신께 피신하는 이들은 모두 즐거워하며 영원토록 환호하리이다. 당신 이름 사랑하는 이들을 당신께서 감싸 주시니 그들은 당신 안에서 기뻐하리이다. 주님, 당신께서는 의인에게 복을 내리시고 큰 방패 같은 호의로 그를 덮어 주십니다.

2019 년 1 월 24 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서 말씀하십니다. “찬미 예수님.”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는 심각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이 선교사업과 함께 인내하였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이 선교회는 성장했고 또 번창했다. 오늘 나는 너희가 용서하기를 바란다. 주님께서서는 이 선교회가 입은 피해와 이 선교사업의 심장에 총알처럼 박힌 중상과 비방 들을 충분히 잘 알고 계신다. 우리는 그저 단 한 명의 영혼이라도 구제된다면 그것으로 이 모든 것에 대한 보상을 받은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만, 그저 한 명이 아니라 무수히 많은 영혼들이 구제되었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 보실 때 이 선교사업은 성공한 것이다.”

2019 년 1 월 25 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내 아들의 재림이 오기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내 말을 믿어라. 내 아들의 재림의 정확한 시간을 안다고 주장하는 자는 아무도 믿지 마라. 오직 나만이 그 사실을 알고 있다. 심지어 내 아들조차도 그 시간을 알지 못한다. 나는 이곳 성지에서도 네게(모린) 말해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사랑으로, 내 아들의 재림의 표징은 알려줄 것이다. 세상은 점점 더 심각한 자연 재해를 겪고 있다. 도덕적 타락은 이제 사회적 규범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기에, 내가 ‘의인’을 찾으려면 인내심을 가지고 찾아보아야 할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내 아들의 재림 전의 큰 고난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은 바로 기도와 희생이다. 나는 의로운 이들을 위해 나의 이 정의(심판)의 시간의 고난을 경감시키고 내 아들의 재림의 전조가 되는 날 수를 줄이고 있다. 나는 의로운 이들에게 기도와 희생을 장려하기 위해 왔다. 너희는 새 예루살렘의 기둥을 세우고 있다. 절대 좌절하지 말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라.”

+ 성경 구절 독서 (루카 21:10-19):

이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민족과 민족이 맞서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맞서 일어나며, 큰 지진이 발생하고 곳곳에 기근과 전염병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무서운 일들과 큰 표징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앞서, 사람들이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할 것이다. 너희를 회당과 감옥에 넘기고, 내 이름 때문에 너희를 임금들과 총독들 앞으로 끌고 갈 것이다. 이러한 일이 너희에게는 증언할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명심하여, 변론할 말을 미리부터 준비하지 마라. 어떠한 적대자도 맞서거나 반박할 수 없는 언변과 지혜를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친구들까지도 너희를 넘겨 더러는 죽이기까지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인내로써 생명을 얻어라.”

2019 년 1 월 26 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자녀들아, 눈이 너희에게 봄을 준비하게 하듯이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은 내 아들의 재림에 대비해 너희를 준비시키고 있다. 내 아들이 지상에 있었을 때 그는 언덕 위에서 너희에게 말했다. 나는 이 메시지들을 통해 너희에게 말하고 있으며, 너희는 이를 마음에 새겨야만 한다.”

“내 아들은 나를 만유 위에 사랑하고 이웃을 너희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거룩한 사랑에 관해 말했다. 나는 너희가 서로를 용서함으로써 거룩한 사랑을 실천하기를 바라며 너희에게 말하고 있다.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라. 그렇게 하면 너희는 언제가 되었든 내 아들의 재림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다.”

“만약 너희가 이웃에 대한 앙심을 품고 있다면 예수가 재림할 때 어떻게 그를 알아보겠느냐? 이웃에게서 예수를 볼 수 있도록 기도하여라. 만약 너희가 진심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면 너희는 어느 누구에게도 앙심을 품지 못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심판 때 내 아들을 만나면 너희가 지상에서 언제나 이웃을 용서했던 것처럼 예수도 너희를 용서할 것이다.”

“참된 용서는 내 아들의 재림에 대비해 너희를 준비시킨다.”

+ 성경 구절 독서 (1 코린 13:4-7):

사랑은 참고 기다립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고 앙심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에 기뻐하지 않고 진실을 두고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 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어 냅니다.

2019 년 1 월 27 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영원한 아버지다. 거룩한 담대함은 이 선교사업의 특성 중 하나다. 심각한 박해 속에서 너희를 지탱해준 것도 바로 이 거룩한 담대함이다. 크고 작은 여러가지 중요한 일로 나를 섬기는 쪽을 선택한 능력 있는 종들과 함께 이 거룩한 담대함은 이제 이 선교회를 지탱하고 있다.”

“이 메시지들의 보물은 진리 안에 머무르는 미래 세대들에 의해 발견될 것이다. 진리는 언제나 이곳 발현과 이 메시지 들의 바탕이었다. 나는 영혼들이 진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 모든 것을 다 활용하였다. 무언가를 찾기 위해 이곳 성지에 오는 모든 이에게는 진리가 주어졌다. 진리를 받아들이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도 있다. 진리를 발견하고 받아들일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은 항상 자유의지의 몫이다.”

“요즘 시대에는 새로운 진실 즉, 내 계명을 거스르는 진실을 만들어내는 것이 유행하고 있다. 나를 기쁘게 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만족시키는 것이 더 인기가 있다. 나는 모든 영혼에게 내 계명에 대한 사랑을 심어줄 수 있기를 바란다. 이 사랑 안에는 참된 마음의 순종이 있다. 내가 참된 순종이라 말하는 것에 주목하여라. 참된 순종은 진심어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순종을 말한다. 이것은 순종 그 자체만을 위한 그런 거짓 순종이 아니다.

나는 모든 영혼에게 죄에 대한 증오를 심어줄 수 있기를 바란다. 이 선물 즉, 죄를 혐오하는 선물이 주어진 영혼은 내가 그의 마음을 거룩하고 신성한 사랑으로 가득 채워줄 수 있게 한다. 이것이 거룩함의 본질이다.”

“내가 영혼들을 세상에서 이끌어내어 개인적 거룩함 안으로 깊이 인도하기 위해서 이 메시지들과 이 기도 성지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라. 언제나 나를 더 사랑하기 위해 기도하여라. 내가 듣고 있다.”

+ 성경 구절 독서 (2 티모 4:1-5):

나는 하느님 앞에서, 또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서, 그리고 그분의 나타나심과 다스리심을 결코 그대에게 엄숙히 지시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히 계속하십시오. 끈기를 다하여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타이르고 꾸짖고 격려하십시오. 사람들이 건전한 가르침을 더 이상 받아들일려고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입니다. 호기심에 가득 찬 그들은 자기들의 욕망에 따라 교사들을 모아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에는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않고 신화 쪽으로 돌아설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견디어 내며, 복음 선포자의 일을 하고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2019년 1월 28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프란치스코 드 살 (살레시오) 성인께서 오시어 말씀하십니다. “찬미 예수님.”

“나는 영혼들이 개인적 거룩함의 길을 가는 것을 돕기 위해 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영혼이 마음속에 거룩한 사랑을 지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모든 생각과 말과 행위가 기도가 됩니다. 거룩한 사랑은 더욱 깊은 덕으로 여러분의 하루에 맛을 더하며, 하느님의 거룩한 뜻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덕에 풍미를 더해 줍니다.”

“거룩한 사랑은 '각자 자기 일은 자기가 알아서 한다'라는 태도를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오늘날과 같은 시대에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영혼의 거룩한 사랑이 더 깊어지지 않고서는 거룩함에서 진보할 수 없습니다. 거룩한 사랑의 실천은 하나의 기도입니다. 모든 행위는 다른 이들에 대한 친절과 인내심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생각과 말 또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거룩한 사랑의 수용은 세계 평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거룩한 사랑의 기초가 없이는 덕이 빈 껍데기에 불과한 것처럼 해결책 또한 공허한 것이 될 뿐입니다.”

“보편적 사랑이 되어야만 하는 거룩한 사랑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는 내 메시지를 받아들이십시오.”

+ 성경 구절 독서 (필리 2:1-5):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격려를 받고 사랑에 찬 위로를 받으며 성령 안에서 친교를 나누고 애정과 동정을 나눈다면, 뜻을 같이하고 같은 사랑을 지니고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이루어, 나의 기쁨을 완전하게 해주십시오. 무슨 일이든 이기심이나 허영심으로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십시오. 저마다 자기 것만 돌보지 말고 남의 것도 돌보아 주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지니셨던 바로 그 마음을 여러분 안에 간직하십시오.

2019년 1월 29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불꽃 양쪽에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과 프란치스코 드 살 (살레시오) 성인께서 서 계십니다. 두 성인이 불꽃을 향해 인사 하시고는 사라지십니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모든 시대의 아버지다. 나는 신성한 사랑으로, 이 도덕적 상대주의의 시대에 너희의 안전한 방주는 바로 이 메시지들이라는 사실을 너희에게 말해주러 왔다. 타협은 교회 안의 가장 높은 자리에까지 도달했다. 타협은 수많은 정치적 지도자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으며, 확실히 전 세계적으로 도덕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이 메시지들은 죄를 좋은 선택으로,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선택으로 탈바꿈 시키는 현대적 사고방식에 도전한다. 참으로, 전 세계적으로 부도덕의 물결이 거세지고 있는데 이 메시지들이 이것을 드러내고 또 반박한다. 각각의 메시지는 믿는 이들을 위한 안전한 방주를 건설하는 것을 돕는다. 노아의 시대에 그는 믿지 않는 이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지만, 그들은 모두 대홍수가 일어날 때 죽었다. 인간은 내 진노의 시간이 오기 전에 이 메시지들을 받아들여야 하는 필요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

+ 성경 구절 독서 (창세 6:11-14):

세상은 하느님 앞에 타락해 있었다. 세상은 폭력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느님께서 내려다보시니, 세상은 타락해 있었다. 정녕 모든 살덩어리가 세상에서 타락한 길을 걷고 있었다. 하느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모든 살덩어리들을 멸망시키기로 결정하였다. 그들로 말미암아 세상이 폭력으로 가득 찼다. 나 이제 그들을 세상에서 없애 버리겠다. 너는 전나무로 방주 한 척을 만들어라. 그 방주에 작은 방들을 만들고, 안과 밖을 역청으로 칠하여라.”

2019년 1월 30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자녀들아, 오늘 바깥 날씨는 몹시 춥다 (체감온도 화씨 -31도, 섭씨 -35도). 이것은 오늘날 수많은 세상 사람들의 마음의 냉담함을 보여준다. 이들은 내 품에서 쉽게 빠져나가지 못하는데, 내가 내 도움 없이는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들을 계속 그들에게 보내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세상에서 내 뜻은 변함 없으며 항상 그래왔다. 나에 대한 인간의 의존을 깨닫지 못한다면 모든 것이 한결 더 어려워진다.”

“인간 존재는 모든 생명의 창조주인 나와 협력 관계를 이루어야만 한다. 인간이 내게서 독립하려 노력할 때 문제가 더욱 복잡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낙태가 낙태라는 범죄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인간 사건들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깨달아라. 능력 있는 지도부의 부족은 이 낙태죄의 나쁜 열매 중 단지 하나에 불과하다. 평화 부족, 특히 그리스도적 국가가 아닌 나라의 평화 부족은 세계 사건과 미래를 더 악화시킨다.”

“인간은 모든 국제 사건 속의 내 역할에 대해 잘 생각해보고 내 역할을 존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나를 사랑하여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감싸는 내 전능한 힘을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다. 내 계명에 순종하여라.”

+ 성경 구절 독서 (신명 5:1):

모세는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아, 내가 오늘 너희에게 똑똑히 일러 주는 규정과 법규들을 들어라! 너희는 그것들을 배우고 명심하여 실천하여라.”

2019 년 1 월 31 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자녀들아, 나는 너희가 영원한 기쁨에 도달할 수 있도록 너희에게 살아가면서 따라야 할 법규를 주었다. 내 계명은 어떻게 해야 구원에 이를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위험한 점은, 오늘날 영혼들은 내가 그들에게 준 천국으로 가는 곧은 길 대신 다른 길을 만들려고 애쓴다는 사실이다. 진리를 바꾸려고 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너희는 항상 거짓을 말하게 된다.”

“내가 너희에게 준 계명에 따라 너희 삶의 방향을 선택하여라. 너희의 심판 때는 협상의 여지가 없다. 나는 구원을 얻는 데 필요한 은총을 모든 영혼에게 보낸다.”

“내 계명은 진리이며, 나는 인류에게 이 진리를 따를 것을 요구한다. 진리를 받아들여라. 그러면 너희 마음과 세상의 마음은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다. 내 계명은 진리와 사탄의 거짓말을 가려내는 풍구다. 모든 혼란 뒤에는 사악한 자가 숨어 있다. 너희에게는 원수를 드러낼 수 있는 진리가 있다. 언제나 진리를 수호하고 지지하여라.”

+ 성경 구절 독서 (레위 20:22):

너희는 나의 모든 규칙과 나의 모든 법규를 지키고 그것들을 실천해야 한다. 그래야 내가 너희를 데리고 들어가 살게 할 땅이 너희를 토해 내지 않을 것이다.

2019 년 1 월 31 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야아, 나는 내일 선택에 관해서 말해주겠다. 나는 태고부터 이 메시지를 내 부성적 성심 속에 품어 왔다.”